

문화소식

제17회 전국어린이 부처님그림그리기 대회

목아박물관(관장 박찬수)은 어린이 포교 활동의 일환으로 '제17회 전국어린이 부처님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전국 어린이를 대상으로 '부처님'을 주제로 한 그림을 4월 30일까지 접수받는다. 만 5세 이상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가능하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 및 기념품이 증정되며 우품 으뜸상에게는 300만원 상당의 부상이 수여된다. 수상작 100점은 한·중·일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에 출품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목아박물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수상식은 5월 4일 발표되며, 시상식은 5월 5일 개최된다. (031)885-9952-4 www.moka.or.kr

죽이는 수녀를 이야기

웰빙을 넘어 웰다잉(well-dying)에 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나면서 호스피스에 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연극 '죽이는 수녀를 이야기'는 호스피스 활동을 주력해온 마리의 작은자매회 수녀들이 죽음을 삶과 함께 자연스럽게 이야기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2010년 12월부터 공연에 나섰던 '죽이는 수녀를 이야기'는 양광 공연으로 6월 12일까지 대학로 세우아트센터에서 다시 만나볼 수 있다. (02)318-4148

제11회 불교꽃예술전

한국전통불교꽃예술회(회장 신오)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해 제11회 불교꽃예술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관불화와 공화를 주제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나무갤러리에서 4월 21일까지 연다. 15일까지 접수된 작품들 중 수상작인 대작은 30만원, 중작 20만원, 소작 10만원의 부상이 수여된다. 불교꽃예술회는 지난 1988년 한국불교비구니꽃꽃이회로 결성된 이후 불교꽃이와 만행화(萬行花)를 통한 육법공양의 전통보존과 발전에 기여해 왔다.



선불교 계간지 탄생

발행인 수불 스님, 영문버전 해외에 보급할 계획

한국의 간화선을 중심으로 다양한 선불교 문화를 신는 계간지 '젠 앤 컬처(선과문화·ZEN and Culture)'가 창간됐다.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이 발행을 맡은 <선과문화>는 선불교의 문화를 주요 내용으로 △세계선의 문명사적 흐름 △선수행의 현황 △선수행의 학술적 흐름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선학자들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신는 선불교 문화 전문지이다.

<선과문화>는 각경 스님(안국선원)이 주간을 맡았으며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일선 스님(금천선원장), 천후 스님(명덕사 주지), 김홍근(간화선연구소 책임연구원)이 편집기획위원으로, 이상균 씨가 편집장을 맡고 있다.

주요 콘텐츠는 △스페셜 에세이 △포토 에세이 △젠 라이프 △젠 에세이 △연중특별면 △문화 등으로 구성됐다.

<선과문화> 2011년 봄호에서는 △연중특별면 -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하루 30분 참선 △창간 특집기획 특별좌담회 - 한국간화

선 수행의 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조용헌의 영지기행 - 한국선의 어머니 경허선사의 천장사 △나는 이렇게 수행했다 - 일본 임제종 수행기 △수덕사 방장 송원 설경 스님의 선어록강좌 △종림 스님의

행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무한한 힘을 지녔다고 할 수가 있다"며 "모든 것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무한한 가치와 창조적인 힘을 지닌 불초의 가르침과 선 수행의 인연은 모든 인류에게 희망으로



대장경 산책 등이 실렸다.

수불 스님은 "지금 세계인들은 누구에게나 보편타당한 정신문화 사적 문명을 갈망하고 있다. 그 중심에 바로 불교와 선이 있다. 선 수

나니 줄 <선과문화>는 한국선불교의 알리미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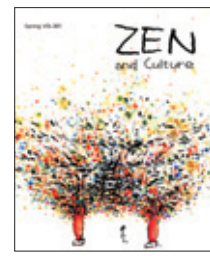
수불 스님은 이어 "<선과문화>를 통해 선의 다양한 모습을 신는 기획코너에 중점을 둘 것이다. 일

반대종들과 불교 초·중급자, 선에 관심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선과문화>는 선의 문명사적 접근을 위한 다양한 선불교학자들의 논문 및 글을 게재하고 국내외 선문화를 주도하기 위해 '선' 국제네트워크 구성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에이전시를 통해 외국출판사에서 <선과문화>를 출간해 유럽, 미국 등 세계로 보급할 예정이며 한글과 영어로 된 선뉴스 전문 홈페이지 구축해 한국선의 다양한 모습을 전세계로 송출할 계획도 갖고 있다.

수불 스님은 "선문화가 현재와 미래의 인류에게 탁월한 대안과 희망이 되리라는 전망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우리 모두 진정한 행복을 위해 선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선과문화>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선과문화>는 불·여름·가을·겨울 발행하며 1년 구독은 6만원, 각권 1만6000원이다. (070)4179-7208 이나은 기자



이은정 기자의 뽀뽀(Pun Pun)한 레시피⑥

두부 김밥

퇴근길에 우연히 가로등에 비친 빛꽃을 발견했다. 환한 대낮에는 보이지도 않던 꽃들이 밤에는 왜 그리도 눈에 잘 띄는 지... '내가 오늘 뭘 했지?'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꽃이 아니었으면 봄이란 사실도 까맣게 잊고 한 계절을 또 지나칠 뻔 했다. 괜히 마음이 울적해졌다.

핸드폰을 들어 집에 전화를 걸었다. 얼마 전에 무릎이 많이 아프시다는 엄마가 걱정이 돼 검사검사 안부전화였다. 전화를 받자마자 엄마도 신세한탄이시다. "늙는 게 싫어. 거리에는 꽃들이 천지인데, 무릎이 아프니 꽃구경도 못가잖아. 세월엔 장사 없다더니, 난 늙을 줄 몰랐는데 나이드니 별수 없네."

됐다. 평생 내 옆에서 나를 돌봐 줄 줄 알았다. 담장 너머로 고개를 든 꽃을 보니 주말에는 만개일 것 같았다. 아마도 거리에는 꽃잎 수만금 사람들이 많을 거다.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또 내년을 기약해야 꽃을 볼 수 있다. 엄마도 '얼마나 내가 더 꽃을 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다.

사람들에게 밝히더라도, 올해는 엄마랑 꼭 소풍을 가야겠다. 엄마가 항상 소풍갈 때 싸주시던 엄마표 김밥은 이번엔 내가 싸서 갈 예정이다. 아마도 엄마처럼 김밥을 싸려면 꽃이 다 떨어질지 모르지만, 엄마한테 내가 직접 싸 김밥을 언제 또 헤드릴 수 있을지 모른다. 옆구리가 터진 김밥이라도 내년보단 올해 만들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알고가기 두부는 고단백 식품으로 다이어트에 적합한 식품이다. 리놀산 함유하고 있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올리고당이 많아 장의 움직임을 활성화시킨다. 동맥경화에방해 탁월하며, 소화흡수를 돕는다. 두부는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풍부한 김치와 궁합이 잘 맞는다. 두부는 오래 보관할 때는 물에 담가두는 게 좋다. 이때 물에 소금을 조금 뿌려놓으면 신선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

Recipe for Kimbab: Ingredients include 2 pieces of tofu, 8 pieces of kimchi, 1 egg, 1 piece of radish, 1 piece of carrot, 300g of bean sprouts, 8 pieces of seaweed, 1 piece of mushroom, 1 piece of carrot, 1 piece of radish, 1 piece of carrot, 1 piece of radish, 1 piece of carrot. Instructions: 1. Cut tofu into 2cm squares and marinate with soy sauce. 2. Heat oil and fry the tofu. 3. Mix seaweed, carrot, radish, and mushroom. 4. Fry the mixture. 5. Cook rice and mix with soy sauce. 6. Assemble the kimbab with rice, filling, and seaweed. 7. Serve with soy sauce and sesame oil.

젊은 불자 가수 영입에 힘쓰겠습니다

가수 나운하, 제12대 대한불자가수협회 회장



젊은 강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불자가수협회가 창단된 지 21년째다. 그러나 불교계 안에서는 협회에 대한 존재와 활동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많은 불자가수들이 개신교로 개종을 하는 가하면, 젊은 불자가수 영입에도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불자가수협회는 창단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월 12일 불자가수협회 12대 회장 취임식을 앞둔 가수 나운하 씨를 만났다. 가수활동을 해 온지 37년이 된 그는 최근에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주로 공연활동을 펼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나운하 씨는 "일본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일어난 대지진에 의해 공연이 잇따라 취소되고 말았다"며 "아무래도 회장일 열심히 하라는 부처님의 뜻이 라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번 회장직을 새롭게 맡으면서 나운하 씨의 각오는 남달랐다.

"불교가 활성화 되려면 젊은 불자들이 늘어나야 하는데, 젊은 불자들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젊은 불자가수 확보가 시급합니다. 젊은 가수들 중에서 불자들이 많지만 스케줄

이 바쁘다는 이유로 다들 협회에 영입하지를 않았죠. 앞으로 그런 친구들과 계속 접촉을 해서 협회에 영입하도록 권유할 생각입니다." 현재 그는 다양한 인맥을 동원해 젊은 불자가수 영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불자가수는 봉사과 포교가 함께 이뤄져야만 하기 때문에 영입한 후에도 불교 포교를 위한 활동이 그만큼 중요하다.

"매년 마다 전국사찰에서 산사음악회를 여는데, 스님들이 불자가수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더군요. 그만큼 스님들과 가수들이 소통이 안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전국 사찰을 찾다니며 노래 자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법회 등에 참가해서 음성공양을 할 수 있도록 활동을 넓혀 나갈 방침입니다."

나운하 씨는 젊은 불자가수 영입과 더불어, 위기를 맞은 협회의 재건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운하 씨는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협회가 일할 수 있는 사무실이 없다는 것"이라며 "조계사 근처에 사무실과 노래 연습실, 포교당 등의 건립을 계획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필드를 뛰며, 진정한 리더십이 뭔지를 보여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나운하 씨의 불자가수협회장 취임식은 4월 29일 종로구청 대강당에서 봉행될 예정이다. 한편 나운하 씨의 정규 앨범이 5월 말에 발매될 예정이다. (02)742-0200 이은정 기자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햇 온열경영.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목욕탕 문화가 바뀌었다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반신욕법. 휘나햇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 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리해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 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욕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따뜻하게 배출되게 때문에 몸속(체온) 상승되며 신체의 상태가 좋아진다. 체온이 1도 상승되면 각자 체질에 따라 면역력이 8-10강해지는 휘나햇 온열경영은 3-4년 전 하루 200-250명 무료 체험을 통하여 많은 체험사례가 있으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휘나햇은 30여종 광물질(특허특제 제10-096707호 발명의명칭:세라믹전기발열제 및 그 제조방법)특수제작한수퍼블랙드스크 B.C.P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 일반온수발열제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햇 반신욕기는 특별할인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될 것입니다. (2020년까지)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쁜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 등에 증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문의: 070-7804-5358. 제과: 농협 351-0260-3196-83. 예금주: 김삼목

100% 국내산 참옷나무 진액 참옷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옷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옷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100% 국내산 참옷나무 진액 참옷 골드.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초 주산지를 찾아 헤매던 사람이 지하 250m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옷물을 만들었습니다. ▶꽃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꽃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착한 참옷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옷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